

어명소 2차관, “항공사고 차단할 근본적 안전개선대책 주문”

- 3일 항공사 정비 현장 찾아 인력·시설·장비 등 철저한 안전체계 확립 강조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한항공 A330 항공기 엔진 결함 사례와 관련해 11월 3일(목)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을 방문하여 결함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어 차관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사고, A330 엔진결함 등에 대해 **엄중 경고**하고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“현 상황에 대한 막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**근본적 쇄신방안**을 마련할 것”을 특별 주문하였다.
 - 또한 “대한항공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·엔진에 대한 **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마련**을 신속히 추진”하고,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에게 “11월 4일(금)부터 실시되는 「**종합 안전점검**」에서 대한항공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정밀 진단·해소하고 항공사의 개선 이행상황도 철저히 감독”하도록 지시하였다.
- 이어, 어 차관은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와 주기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최근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현장의 항공종사자를 만나 격려했다.
 - 어 차관은 “국제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종사자 복귀, 교육훈련, 자격유지, 피로관리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,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,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”고 강조하는 한편,
 - 특히, “**안전 없는 항공회복은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과 같다**”면서, “현장 종사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매뉴얼 준수와 항공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2. 11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